

흑산공항 부지 국립공원 해제되나

도초·비금·흑산면 일대 해제...지도읍 선도갯벌 공유수면 등 편입 환경부,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 대체부지 편입 방안 의견 조율

10년 넘게 멈춰선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해제 여부가 올해 안에 결정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가 막바지 단계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흑산공항 예정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체 부지를 편입하는 방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도 조정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해제 여부 등을 포함한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공원구역 변경계획 등을 올 하반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막바지 의견 조율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법 구역 변경 조정안에 부처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제 3차 국립공원 변경 계획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일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대한 빨리 후속 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안군은 지난 3월 정부에 흑산공항 예정지의 국립공원 해제, 대체 편입 지역 등을 담은 '국립공원 구역조정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흑산면 예리 공항 건설예정지와 인근 도초, 비금, 흑산면 일대 249만299㎡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지도읍 선도 갯벌 공유수면과 도초 비금면 일대 557만219㎡를 국립공원으로 대체 편입하

자는 게 골자다.

신안군과 전남도 안팎에서는 흑산도 공항 부지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대신, 보존 가능성이 높은 다른 부지를 국립공원에 포함하는 의견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동의했다는 말이 흘러나오면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리기만을 고대하는 분위기가 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표류했던 공항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흑산공항과 함께 추진된 울릉공항은 지난해 11월 착공식을 갖고 오는 2025년 개항할 예정이지만, 흑산공항은 지난 2009년 신안군의 '흑산도 경비행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음에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거듭해왔다.

/감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北 핵·미사일 위협 상정 '호국훈련' 시작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상정한 '호국훈련'이 시작된 17일 오전 군 장병들이 경기도 파주시 한 훈련장에서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시민,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는 '암'

치매·비만 순...광주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광주 시민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강 문제는 암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2023~2026) 수립을 위해 지난달 시민, 보건 의료 관계 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는 암이 54.0%로 가장 높았다. 치매(45.1%), 비만(42.3%), 만성질환(37.7%), 중독(28.5%) 등이 뒤를 이었다.

'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은 흡연(53.6%), 음주(52.9%), 정신 건강(47.7%), 영양(42.9%), 신체활동(39.9%)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건강 취약계층'은(중복 응답) 저소득층(56.6%), 장애인(56.4%), 독거노인(49.2%), 한부모·조손가족·정신질환자(47.3%), 임신부·산모·영유아(39.2%) 순으로 응답했다.

광주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예방의학, 감염병, 암, 치매, 정신보건, 의료지원 분야 등 외부 전문가와 보건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 의료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중의 미래와 지방의 역할' 국제 심포지엄

광주시, 한중수교 30주년 18~19일 개최...교류협력방안 모색

광주시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18~19일 이틀간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한중의 미래와 지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주한 중국대사관,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이 후원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양 국의 석학들이 참여해 경제·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주도가 아닌 지방 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새로운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할 예정이다.

첫 날인 18일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기

조 강연을 통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이후 전개될 동북아 정세를 전망하고 한국 정부가 지향할 대중국 외교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날에는 '한중 지방정부 경제협력의 질적 변화', '한중문화교류의 새로운 방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한중 지방정부의 역할' 등 3개 세션별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국 CCTV, 국영 신화통신, 인민망 등 주한 중국 언론사 특파원들이 현장을 취재해 상황을 자국에 송출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국인, 일주일에 라면 1.7회 먹는다

점심에 가장 많이 취식...국내 시장 2조원 규모

한국인은 일주일에 평균 1.7회 라면을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20대와 40대가 가장 많이 먹고 여성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이 섭취했다.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시점은 점심시간이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2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라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제품 구매 경험이 있는 15~65세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라면 취식 빈도는 주평균 1.7회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1.8회, 여성은 1.5회였다.

라면 취식 시점(복수 응답)은 점심 식사가 58.2%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저녁 식사(43.2%), 간식 대용(26.8%), 상황에 따라 다름

(20.0%), 심야 시간(19.4%), 아침 식사(10.8%) 등 순이었다.

라면 주요 구매 채널은 대형마트가 36.6%로 1위였고 동네 소형슈퍼(15.6%), 편의점(8.4%), 대형마트 온라인몰(8.0%), 온라인 쇼핑몰(6.8%) 등 순으로 있었다.

현재 출시된 라면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에 평균 3.9점이며 여성이 3.95점으로 남성(3.85점)보다 높았다.

국내 라면 소매시장 규모는 2조원 정도로 농심이 절반을 차지하고 브랜드는 신라면이 시장 점유율 1위였다.

수출액은 8000억원을 웃돌며, 2015년 이후 매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연합뉴스

악성댓글 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최대 35조원

응답자 46.5% 직·간접 경험...가해자 전혀 모르는 사람 80.5%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35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는 17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주최한 '악성댓글,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악성 댓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계량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구소가 집계한 비용은 연간 최소 30조5371억원, 최대 35조3480억원이다.

불안·우울로 인한 행복 상실 기회 비용이 약 28조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능력

저하 기회비용, 변호사 선임과 손해배상비용 등도 포함됐다.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5%가 악성 댓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답변은 80.5%였다.

또 인터넷 이용자 과반(54.8%)은 악성 댓글 작성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10.3%에 그쳤다.

연구소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익명성으로 인한 낮은 온라인 윤리의식과 처벌규정 개선이 필요하며 정책과 교육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처분하기 힘든 모든 부동산 교환
하실분. 010-3605-5000

지분 임야, 땅 삽니다
맹지사절. 010-3605-5000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합계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계획(안) 열람 공고

안태면 복합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신안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에 대해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8일
신안군수

-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가. 위 치: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단고리 970-1 외 1필지
나. 목 적: 암태면 복합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신안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다. 해제 내역
· 농업진흥지역 8,090.6㎡ → 농업진흥지역밖 8,090.6㎡
※ 기타 자세한 토지조서는 신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2. 10. 19 ~ 11. 01. (14일간)
나. 열람장소: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다. 열람사항: 관련 도면 및 토지조서
-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열람기간 내
나. 의견제출처: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신안군 암태읍 암태로 1042) (전화: 061-240-8372)

산행안내

10월22일(토)
▲광주호산회 10월22일(토) 가을 특별산행...오색단풍 전망대 주상절리/고척정.꽃길(가) 오전 05시 중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5시 30분 롯데백화점 05시 45분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010 4621 2166, 010 6702 97%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음은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공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